

#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OCTOBER 2014



KING  
SAMO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097  
201410

지금,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23/100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in the bottom right corner.





1

1. 2010 광주비엔날레 피에르 뒤벨 & 데이비드 웨이스(Peter Fischle & David Weiss) (Visible World) 1962-2001 2. 2006 광주비엔날레 마이클 주(Michael Joo) (넌다 온루스케티스) 3. 2008 광주비엔날레 슈민 린(Shu-min Lin) (내공) 4. 2012 광주비엔날레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양양대배)

컴한 방(덴마크, 올라퍼 엘리아슨, Olafur Eliasson), 어둡고 텅 빈 방의 끝에서 유령처럼 홀로 독백을 하는 홀로그램 인물(프랑스,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Dominique Gonzalez-Foerster) 등을 만난다. 전반적인 전시 구성이 세련되고 우아하다. 강력한 전복을 요구하는 전시가 이렇게 포장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과격한 해체마저도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하는 모양이다. 전시의 내용과 수준, 디스플레이, 관람 후 전체적으로 오는 전시의 느낌 또한 상쾌하다. 광주비엔날레가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 이후 그렇게 해왔듯이 서구권 전시 전문가의 기획 능력을 빌려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포장의 결정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광주비엔날레의 진면모가 없다. 광주비엔날레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채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차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사실 광주비엔날레의 터전을 불태우는 사건이 개막한 달 전 진행된 특별전 <광주 정신>전에서 벌어졌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기념하기도 하는 그 행사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10.5×2.5m)이라는 대형 걸

개그림이 걸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림의 내용은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대인시장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던 오월 어머니가 힘차게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담은 것이었다. 여기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정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해서 그런 장면이 문제되었다. 큐레이터 중 한 명이 광주시에 보고를 했고 시측에서 전시 불가를 통보해 왔으며, 작가들은 예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항의하는 한편 일부 작가들은 동반 철수했고 책임 큐레이터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광주권 작가들은 비엔날레 개혁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였고 결국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사퇴했다. 근 한 달간에 걸쳐 이 사건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일국의 대통령을 치졸하게 비하한다는 데 대한 비판과 옹호, 작품 철수를 두고 일어난 관권 개입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국비 지원의 전시에서 국가 원수 모독에 따른 예산 삭감의 우려, 비엔날레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의 요구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광주비엔날레는 개막 이전에 이미 불태워져 전복되고 있었다. 대표 이사는 사퇴했고 이사장인 시장은 명예이사장으로 물러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신입 대표 이사를 두고 광주권 원로 화가가 물망에 오르는 등 전복 이후에도 혼란은 가중되었다.

광주비엔날레의 구조적 모순은 시장이 이사장인 이사회 관료적 비전문성에서 비롯된다. 광주비엔날레 이사회 23명은 광주시장과 행정부시장, 광주지역 미술관장, 단체장을 포함해 대학교수, 법조인, 기업인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비엔날레 전반의 운영 및 전시에 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비엔날레의 생리를 알고 전략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서로 논의하며 꾸러 갈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전에는



2



4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전 대표이사가 근 10년 간 전제적 권한을 행사했던 것도 거수기로 전략한 이사회를 두고 시장의 동의만 구하면 무엇이든 자행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었다. 민주적 논의 구조로 바꾸기 전에는 이렇게 둔중하고 비효율적이며 무능한 이사회는 여전히 또 하나의 전제적 권력을 허용하게 될 것이며 권력 편중에 의한 부작용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과 비엔날레 논의 기구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은 별도의 지지구조를 만들어 말 그대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논의 구조는 비엔날레의 현황과 미래적 전략을 가다듬으며 광주비엔날레만의 존재 이유를 회복해야 하며 새롭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비엔날레의 예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낯선 외국인 기획자들을 불러 마후에서 진두지휘하며 그 권력이 오래 동안 유지되고 빛나기를 바라는 따위의 행보로 서구적 성향을 추종하거나 꺾이기만 그럴 듯한 모양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를 자부한다면 우선 아시아

권 비엔날레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탐색하며 교류해야 한다. 20년 동안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이용은 했을지언정 아시아 북판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또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부한다면 전시 예산, 관람객 수 등을 그 규모를 자랑하려 들지 말고 전시 행사의 독자성, 차별화된 방향성으로 주목 받고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 비엔날레 기구를 만들어 그 가운데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중심에 든 것처럼 착각에 들게 하는 일도 부질없는 짓이다. 비엔날레는 태생부터 기구화, 제도화된 문화적 틀에 반항하는 것이다.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 문제들과 만나 담론을 만들고 시대성을 여는 종류의 비엔날레는 언제나 제도적으로 길들여지기 보다는 그것과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다.

권력을 추구하는 비엔날레는 좌초된다. 규모를 자랑하고 관객 숫자를 헤아리는 비엔날레는 보잘 것 없다. 민주적 논의 기구를 통하여 쟁쟁하고 긴밀한 진로가 조율되고 효과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비엔날레가 바람직하다. 일련의 사태로 광주비엔날레는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야말로 바다까지 추락하는 전복 속에서 오히려 제대로 세울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태우려면 송두리째 태워라. 잔재를 남기지 말고, 그리고 지혜롭게 건설하라. ■



1. 2012 광주비엔날레 마이클 주(Michael Joo) <분리불가>  
2. 2004 광주비엔날레 이경호 <달빛소나타>  
3. 2010 광주비엔날레 <테디베어 프로젝트>